

기묘년 불교달력 '나왔다'

조계종 출판사·감로기획 등 달력 선보여 산사의 사계·연꽃·석불·문살등 내용 다양

안방에서, 사무실에서, 또 생활에서, 각 관공서에서 일년내 내 보게되고, 또 보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달력이다. 음력과 불교의 각 명절·의례의 식일이 적혀있는 불교달력은 신 행활동을 위한 필수품이면서 말 없는 포교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무인년 여름도 다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벌써 불기 2543년(1999년) 기묘년 불교달력이 나오고 있다. 해해 달력들은 사계절의 산사, 연꽃, 석굴암 등 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재는 물론, 석불, 동자승들의 모습, 문살, 사자, 달마도, 나한도 등 다양하다.

조계종 출판사가 내놓은 달력은 3종, '처염상정'과 '산사의

향기', 그리고 숫자판으로 된 '무상'이다. '처염상정'은 지난 7월 개인전을 가진 일선스님의 탁월한 색감의 연꽃그림을 선별해 묶었으며 '산사의 향기'는 서명스님이 촬영한 유명사찰의 불 여를 가을 겨울을 담았다. 칼라와 흑백 2종이며 조계종 중무기관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02)733-6390

감로기획에서는 각 불자들의 취향에 따른 달력 8종을 마련했다. 해맑은 동자승을 통해 천진 불심을 되새길 수 있는 '동자승의 세계', 산사의 4계를 담은 '산사의 향기', 국보 보물로 지정된 석불들을 모은 '한국의 석불', 부처님의 땅 경주 남산의 마애불을 볼 수 있는 '경주남산', 금강산의 사계, 익살맞은 나한의 모습을 소개한 '나한도'



◇다양한 그림·사진들을 소재로 한 1999년 기묘년 새 달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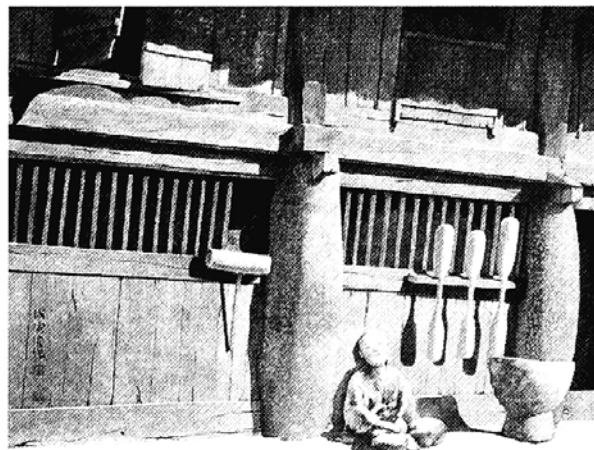
등. 최근 각광받는 사찰문살의 아름다운 문양을 모은 '불교전통문살의 미'와 석불, 산사의 향기 등은 사진작가 안장현씨의 사진들이라 특유의 풍격을 느낄 수 있다. (02)723-4306

불광출판부가 내놓은 달력은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을 비롯해 불 보살상들을 모은 안장현씨의 사진 '석굴암'과 운명숙씨가 찍은 해인사 송광사 실상사 금강사 등 명찰의 특색있는 부분을 담은 '한국의 사찰' 2종류. (02)420-3200

불교이벤트사는 전통적 불교 문화에 동화적 요소를 가미한 '어진이' 2종과 산사의 고즈넉함을 주위 풍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동양화작품, 메란 국죽의 사자군 그림을 통해 육바리말을 표현한 '육바리말' 등 4종의 달력을 선보이고 있다. (02)716-7790

불교구단 '바람' 달력사업부는 모두 9종류의 달력을 마련해 놓았다. 사진작가 이승민씨의 '연화의 사계', 윌연스님의 '달마도', 사찰의 사계를 담은 '절이 있는 풍경' '보살도' '사찰 풍경에 목각으로 된 동자승을 배치한 '목아동자', '천진불' 등이다. (02)725-6824

대구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노춘애·김성복·김종언·김도환씨 등도 각각 유화로 그린 산, 연꽃, 경주남산 석불, 산사 달력을 펴내 이채. (053)654-3465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세계순회전을 갖는 원성스님의 동승그림 '불별'.

동승그림 '지구촌 순회'

9월부터 서울→밀라노→뉴욕→도쿄

천진불심 동승의 미소가 세계로 나들이를 떠난다. 천진무구한 '동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중 앙승가대 복자학과 4년)이 9월부터 세계 유명 4대 도시를 순회하는 초청전시회를 갖는다.

9월 4~13일 서울(안국동 백상기념관)을 시작으로 10월 10~25일 이탈리아 밀라노(극동 아시아예술 및 민족학 박물관 전시실), 11월 1~7일 미국 뉴욕(맨하탄 한국문화회관 전시실), 11월 15~21일 일본 도쿄 등에서 차례로 갖는 순회전시의 주제는 '산종일기', '지대방 이야기' '사유' '불별' '관세음보살' '청승아래서' 등 산사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의 여러 모습을 해맑게 표현한 그림 80여점이 소개된다.

자연과 교감하는 천진스러움과 청정한 향기를 느끼게 하는 원성스님의 그림은 이미 수차례의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원성스님은 "외국인들의 눈에 동승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세계의 주요도시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불심의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창무예술제 한중일 무용가 한자리 아시아의 정신 찾는다

'미래를 밝힐 '아시아의 정신'은 아시아인들의 신체를 통해 발현된다.'

동양인의 신체에 관한 왜곡된 시선과 서구화된 관점을 지양하고 '저개발의 신체'에 눈을 돌린 '98 창무국제예술제 '아시아의 정신-저개발의 신체'가 26일 서울 창문동 포스트극장에서 개막된다.

창무예술원 주관으로 열리는 예술제는 9월4일까지 서울공연을 마치고 10월12일부터 16일까지는 중국 북경 인민예술극원 수도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8월26일 오프닝 무대는 일본 오노 요시토 무용단의 '공(空)'으로 시작된다. 오노는 자신의 춤은 사람과 자연, 사물의 삶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것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한국의 '춤 음악과 시의 만남-세계의 사랑노래', 중국 북경현대무용단의 갈라공연, 일본 운명회사의 현대무용 'Yang-노조구



◇창무국제예술제에 선보일 오노요시토의 '공'.

히즈지' 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중국 북경공연에는 김경주씨의 '승무', 운주사에 얽힌 천 불탄담이야기를 소재로 한 김선미씨의 '천불탄 일영'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느낌, 극락같은' 재공연

'98 서울국제연극제 참가
9월 18-24일 문예회관

외적으로 보이는 완벽한 형태에 치중하는 동연.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외적인 완벽함이란 무의미하다는 서연. '느낌, 극락같은' (이강백 극본 이운택 연출)은 이러한 상반된 가치관이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화합해 함께 조화된 삶을 이루어나가는 가을 집요하게 추후한 불교연극이다(문지 제174호 7면 참조). 지난 5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강백연극제에서 호평을 받은 이 연극은 '98 서울국제연극제 공식 참가작으로 결정돼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승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재공연된다.

...극락같은'은 불상제작이라는 상징적 작업을 두고 형식이 내용을 보장한다는 동연과 내연의 의

미를 보다 중요시하는 서연 두 사람의 세계관을 대립시키면서 예술가로서 가야할 길과 인간살에서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묻고 있다. 초연때에도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대사와 이운택 특유의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무대가 돋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함묘진역을 관록과 배우 신구씨가 맡으며 조영진(서연 역) 이용근(동연 역) 김소희(합이정 역) 이승현(조승인 역) 등 초연때의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이 연극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화제를 모았던 12명의 불상 코러스들이 화려한 채색의 붓의 불상, 여물을 상징하는 금동불상, 슬슬한 가을의 토우, 황량한 겨울 들판의 돌부처 등을 형상화하며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느낌, 극락같은'의 기획 홍보를 맡고 있는 '해연'은 많은 불자들이

이 관람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자에 한해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02)741-7853



◇서울국제연극제 참가작으로 9.18~24일 문예회관대극장에서 재공연되는 '느낌, 극락같은'의 한 장면.

불심시집 <141>

석양 보내는 종소리

來自鳳城明月路 봉성의 달 밝은 길로 와서 (래지봉성명월로)
登臨方丈白雲峰 산사의 흰 구름 봉우리에 올랐네 (등림방장백운봉)
詩香碧嶺花千片 푸른 섬돌 일천 꽃잎에 시는 향기롭고 (시향벽체화천편)
語冷疎林竹萬叢 일만 그루 성근 대숲처럼 말소 서늘해 (어랭소림죽만층)
紅影日曛秋樹岸 붉은 그림자는 가을나무 언덕에 번득이는 햇살 (홍영일훈추수안)
寒風送夕陽鐘 비라도 나무끼는 저녁 종소리의 차가운 울림 (한성풍송석양종)
重逢又得瓊瑤句 다시 만나자 또 얻게 되는 구슬 글귀에 (중逢又得瓊瑤句)
却愧山僧和未工 산승의 공교몰지 못한 화답이 부끄럽소. (각괴산승화미공)

삼월대사의 시이다. 지방관 리인 봉성의 책방 김공에게 주는(望鳳城朋室金公) 시이다. 방외의 사람에게 주고 받는 시이다. 두 사람의 우정을 이야기하며, 다만 자연사물만 이야기하여 간접적으로 우정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떠나온 곳에 봉성이라는 저자 거리이다. 그런데 그 길을 밝은 달 거리 명월로 하였으니 상대방의 거처에 대해 미화하고 있다. 이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사의 흥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모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공감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한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을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